

국내경기는 2개월 만에 악화

~ 원재료가격의 고공행진 및 불충분한 가격전가가 하락세 요인으로 ~

(조사대상 2만 7,052사, 유효회답 1만 1,222사, 회답율 41.5%, 조사개시 2002년 5월)

조사결과의 포인트

- 2024년 4월의 경기 DI는 전월 대비 0.3포인트 감소한 44.1로 2개월 만에 악화되었다. 국내경기는 급속한 엔저(円低) 진행 및 코스트 부담의 고조가 수익환경을 악화시킨 것도 있어 2개월 만에 후퇴하였다. 향후의 경기는 외국환율에 불확실성이 있으나 임금인상 등으로 인하여 완만한 회복경향으로 추이할 것으로 보인다.
- 『제조』를 중심으로 10개 업계 중 6개 업계가 악화, 2개 업계가 개선되었다. 원재료 가격의 고공행진 등이 폭넓은 업종업계에 영향을 미쳤다. 지역별로는 10개 지역 중 6개 지역이 악화, 4개 지역이 개선되었다. 각지의 관광산업은 인바운드 수요가 대체로 견조하였으나 원재료 가격 급등 및 지역 내 격차 확산 등이 하락세 요인이 되었다. 규모별로는 「대기업」「중소기업」「소규모기업」이 2개월 만에 모두 악화되었다.
- 외국환율은 2021년 이후 엔저(円低)경향으로 추이하여 2024년 4월의 월중평균은 1달러=153.7엔이 되었다. 기업으로부터도 엔저로 인한 원재료가격 급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다수 들려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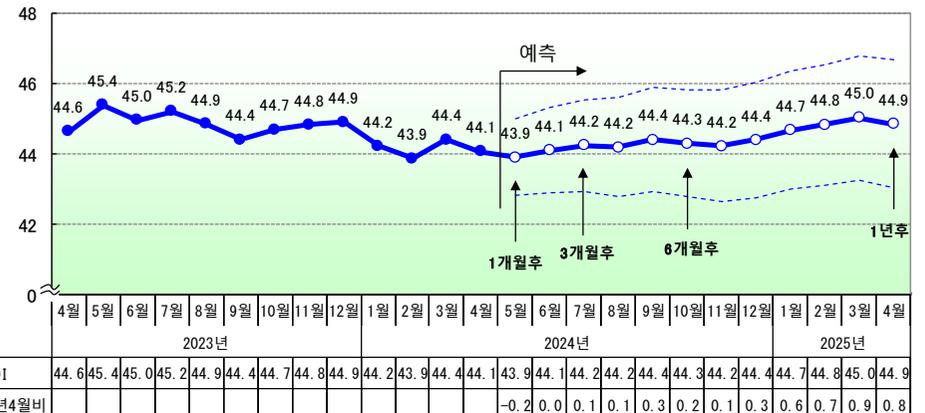
< 2024년 4월의 동향 : 일시후퇴 >

2024년 4월의 경기 DI는 전월 대비 0.3포인트 감소한 44.1로 2개월 만에 악화되었다. 국내경기는 급속한 엔저(円低) 진행 및 코스트 부담의 고조가 수익환경을 악화시킨 것도 있어 2개월 만에 후퇴하였다.

4월의 국내경기는 외국환율이 한동안 1달러=160엔대를 찍는 등 34년 만에 엔저수준으로 추이하는 가운데, 원재료가격의 고공행진 및 2024년 문제로의 대응과 같은 코스트 부담의 증가, 불충분한 가격전가 등이 마이너스 요인이었다. 또한 동일지역 내에 있어서도 체감경기의 격차가 확대되는 경향도 보였다. 한편 엔저로 인하여 활발한 인바운드 소비를 중심으로 관광산업이 견조하였던 한편 상업시설 및 소형 점포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공사관련, 인력부족에 대응하는 각종 서비스 및 성인화(省人化)투자 등은 플러스 요인이었다.

< 향후의 전망 : 완만한 회복 >

향후는 환율의 급속한 변동에 따른 물가로의 영향이 주목된다. 특히 정책금리인상의 타이밍이나 미일(美日) 금리차이, 해외 정치·경제 정세 등에도 좌우된다. 또한 인력부족 및 2024년 문제로의 대응도 리스크 요인으로서 주목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임금인상 등으로 인하여 개인소비의 행방이 경기회복의 열쇠가 될 것이다. 플러스 요인으로는 실질금리 상승 및 인바운드 수요 확대, 적극적인 설비투자 등을 들 수 있다. 향후의 경기는 외국환율에 불확실성이 따르나 완만한 회복경향으로 추이할 것으로 보인다.



* 경기예측 DI는 ARIMA 모델과 구조방정식 모델의 결과를 Forecast Combination 수법으로 산출. 점선은 예측치의 폭(예측구간)을 나타내고 있다.

업계별 : 10개 업계 중 6개 업계에서 악화, 원재료가격의 고공행진 등이 부담으로

• 『제조』를 중심으로 10개 업계 중 6개 업계가 악화, 『소매』 등 2개 업계가 개선으로 나타났다. 원재료가격의 고공행진 등이 폭넓은 업종업계에 영향을 미쳤다. 게다가 급속한 엔저(円低)진행 외에 불충분한 가격전가 및 인제확보를 위한 임금인상은 기업 수익을 악화시킨다는 목소리가 눈에 띄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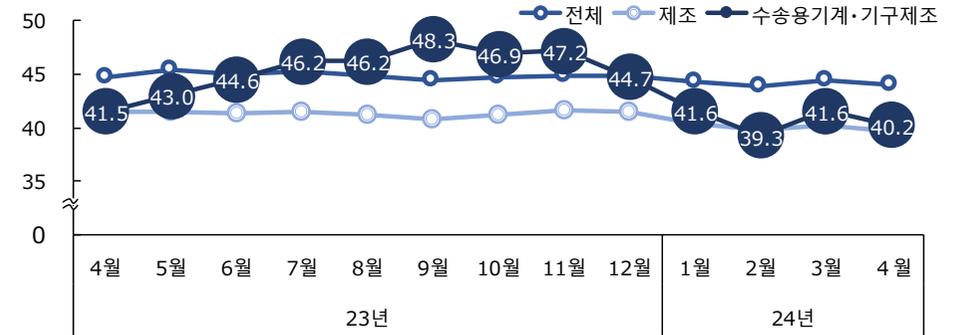
• 『제조』 (39.7) ...전월대비 0.5포인트 감소, 2개월 만에 악화되었다. 「대형 자동차 제조업체의 가동정지가 일상화되어 계획대로 이익이 오르지 않는다」(자동차부품·부속품제조)와 같은 목소리가 들리는 「수송용기계·기구제조」(동 1.4포인트 감소)는 2개월 만에 침체하였다. 「철강·비철·광업」(동 0.3포인트 감소)은 자동차와 관련된 악영향 외에 공작기계의 수주감소가 계속되어 2개월 만에 악화되었다. 게다가 사입단가의 고공행진 및 신설공사의 정체 등으로 「건축·가구, 요업·토석제품제조」(동0.7포인트 감소)도 2개월 만에 악화되었다. 『제조』는 12개 업종 중 11개 업종에서 악화로 나타났다.

• 『건설』 (46.6) ...동 0.4포인트 감소, 3개월 연속 악화되었다. 29개월 연속 사입단가 DI는 70이상을 기록하여 원재료가격을 급등을 마이너스 요인으로 꼽는 기업이 많다. 또한 「시공안전은 있으나 인력부족으로 대응할 수 없다」(토목공사)등과 같은 목소리도 있어 전문가 부족이 하락세 요인이 되고 있다. 게다가 신설주택 착공 호수 감소 등도 악재였다. 2024년 문제에 대하여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지 확인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한편 호텔 관련 설비 투자 및 노토반도지진의 재해복구수요는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서비스』 (50.9) ...동 0.1포인트 감소, 3개월 만에 악화되었다. 렌탈용 건설기계의 침체가 눈에 띄는 「리스·임대」(동 2.3포인트 감소)는 3개월 만에 악화, 7개월 만에 40대로 저하되었다. 날씨가 좌우되는 「오락서비스」(동 0.9포인트 감소)도 3개월 만에 침체하였다. 여전히 수요가 많은 「료칸·호텔」(동 0.2포인트 감소)은 인력이 확보가 불가능한 일부 시설에서 고전하는 등 3개월 만에 하락하였다. 한편 인재 문의가 많다는 목소리가 있는 「인재파견·소개」(동 0.8포인트 증가)는 상향하여 50대를 회복하였다. 환승영회등 회식기회 증가로 「음식점」(동 0.7포인트 증가)은 2개월 연속 개선되었다.

• 『소매』 (41.7) ...동 0.3포인트 증가, 2개월 연속 개선되었다. 개인소비에 어려움은 있으나 「인바운드로 인한 매출이 늘어 활기가 더해지고 있다」(포복·옷감소매)등의 목소리가 있는 「섬유·섬유제품·장식품소매」(동 3.9포인트 증가)는 2개월만에 개선되었다. 「가구류소매」(동 3.0포인트 증가)는 새로운 생활 수요를 사로잡아 3개월 만에 상향하였다. 한편 원재료 가격의 고공행진, 해외제품의 사입가격 급등 등으로 내점하는 고객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많이 들리는 「음식료품소매」(동 0.6포인트 감소)나 종합슈퍼 등을 포함하는 「각종상품소매」(동 1.7포인트 감소)는 함께 2개월 만에 악화되었다.

주목업종의 경기 DI 추이



주요 업종별 경기 DI 랭크

순위	업종명	경기DI	순위	업종명	경기DI
1	료칸·호텔	60.4	12	메인터넌스·경비·검사	46.0
2	정보서비스	55.4	13	음식료품소매	44.7
3	음식점	52.0	14	음식료품도매	44.6
4	전문서비스	51.7	14	교육서비스	44.6
5	인재파견·소개	50.6	16	음식료품·사료제조	44.4
6	리스·임대	49.4	17	가전·정보기기소매	44.3
7	부동산	49.3	18	기계·기구도매	43.6
8	금융	48.8	19	운수·창고	43.1
9	광고관련	47.5	20	정밀기계, 의료기계·기구제조	42.9
10	건설	46.6	20	각종상품소매	42.9
11	오락서비스	46.3	20	의료·복지·보건위생	42.9

10개 업계별 경기 DI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4년 1월	2월	3월	4월	전월 대비
농·임·수산	41.6	42.2	44.8	46.7	42.5	43.0	42.1	43.0	40.1	40.5	40.3	41.2	42.4	42.0	▲ 0.4
금융	44.0	45.0	47.8	48.1	47.4	48.8	46.8	47.3	48.0	47.0	47.7	47.7	49.2	48.8	▲ 0.4
건설	45.5	45.6	46.9	46.8	47.8	47.4	47.1	47.5	47.8	47.2	47.7	47.5	47.0	46.6	▲ 0.4
부동산	47.5	49.6	50.7	50.3	48.8	49.6	48.5	48.7	47.9	47.5	48.1	48.3	49.3	49.3	0.0
제조	41.0	41.4	41.5	41.3	41.5	41.2	40.8	41.1	41.6	41.5	40.4	39.8	40.2	39.7	▲ 0.5
도매	41.9	42.9	43.7	42.5	42.9	42.3	41.9	41.7	42.1	42.7	41.6	40.9	41.4	41.0	▲ 0.4
소매	40.6	42.5	42.4	42.0	41.9	41.8	41.4	41.9	41.2	41.5	40.8	40.6	41.4	41.7	0.3
운수·창고	41.2	42.1	43.4	42.2	43.5	43.3	42.8	44.1	43.8	44.5	43.5	41.9	43.1	43.1	0.0
서비스	50.0	50.8	51.6	51.6	51.7	50.8	50.4	50.8	50.8	50.9	50.2	50.4	51.0	50.9	▲ 0.1
기타	38.2	39.2	41.2	39.8	40.9	40.8	39.2	40.1	38.2	42.8	41.3	41.2	41.1	42.1	1.0
격차(10개 업계별「기타」제외)	9.4	9.4	10.1	10.3	10.2	9.6	9.6	9.7	10.7	10.4	9.9	10.6	10.8	11.2	

※색이 없는 부분은 전월 대비 개선 또는 증가, 황색은 전월 대비 보합, 청색은 전월 대비 악화 또는 감소를 나타냄

규모별 : 2개월 만에 모두 악화, 수익환경의 어려움이 더해져

- 「대기업」 「중소기업」 「소규모기업」 이 2개월 만에 모두 악화되었다. 원재료 등 사업단가 상승이 이익을 압박하는 가운데 2024년 문제 및 인력부족, 자재가격 등이 하락세 요인이었다.
- 「대기업」 (47.9) ...전월 대비 0.1포인트 감소. 2개월 만에 악화되었다. 엔저(円低)로 인하여 수입품 판매수량에 제자리걸음이 보이는 『도매』 는 4개월 연속 악화되었다. 한편 상업시설 및 일반주택, 소형 점포 등의 내장공사가 호조인 『건설』 은 3개월 만에 상향하였다.
- 「중소기업」 (43.4) ...동 0.4포인트 감소. 2개월 만에 악화되었다. 10개 업계 중 5개 업계가 악화, 5개 업계가 개선으로 둘로 나뉘었다. 2024년 문제에 직면한 『건설』 은 인력 부족 및 자재가격 등이 하락요인이 되어 관련된 건재 및 펄프 제조 등에 과급되었다. 한편 『농·임·수산』 은 상향하였다.
- 「소규모기업」 (42.3) ...동 0.6포인트 감소. 2개월 만에 악화되었다. 「부재 급등이 계속되고 있는 한편 공사 가격 저하」 등 『건설』 이 3개월 연속 침체하였다. 또한 「판매가 격으로의 전가가 불충분」 과 같은 목소리도 많아, 이익면에서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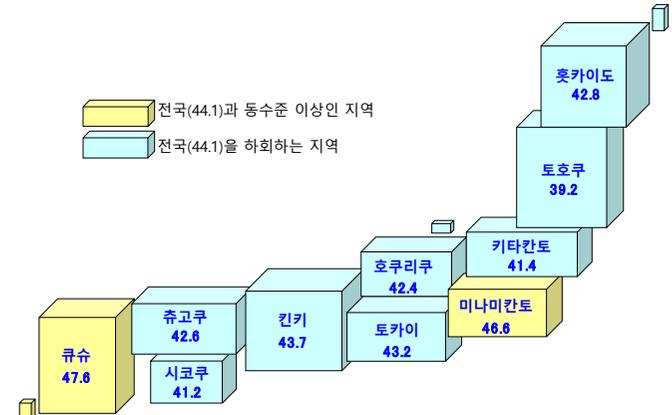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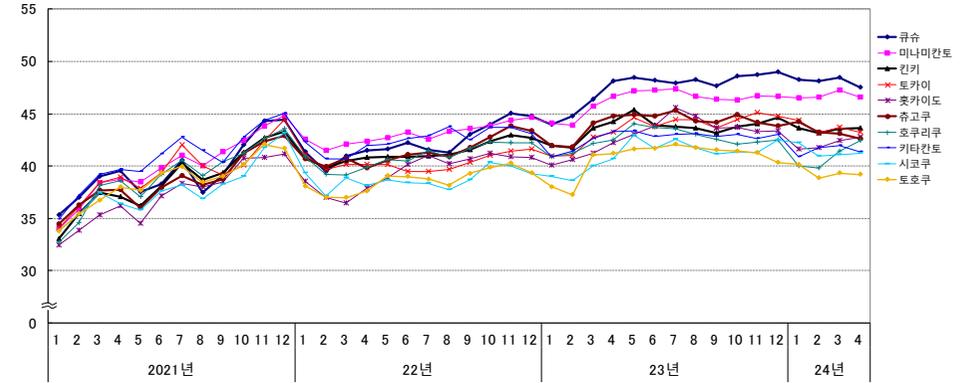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4년 1월	2월	3월	4월	전월 대비
대기업	47.3	48.1	47.7	48.6	48.0	47.8	47.9	48.4	48.1	47.9	47.7	48.0	47.9	▲ 0.1
중소기업	44.2	44.9	44.5	44.6	44.3	43.8	44.1	44.2	44.3	43.6	43.2	43.8	43.4	▲ 0.4
(그중 소규모기업)	42.9	43.9	43.6	43.4	43.5	43.0	43.4	43.1	43.3	42.6	42.4	42.9	42.3	▲ 0.6
격차(대기업 - 중소기업)	3.1	3.2	3.2	4.0	3.7	4.0	3.8	4.2	3.8	4.3	4.5	4.2	4.5	

※색이 없는 부분은 전월 대비 개선 또는 증가, 황색은 전월 대비 보합, 청색은 전월 대비 악화 또는 감소를 나타냄

지역별 : 10개 지역 중 6개 지역이 악화, 관광산업은 견조하나 지역내 격차 확산 우려

- 『키타칸토』 『췌고쿠』 등 10개 지역 중 6개 지역이 악화, 4개 지역이 개선되었다. 도도부현(都道府県)별로는 28개 도부현(都府県)이 악화, 18개 도현(道県)이 개선되었다. 각지의 관광산업은 인바운드 수요가 대체로 견조하였으나 원재료가격 급등 및 지역 내 격차 확산 등이 하락세 요인이 되었다.
- 「키타칸토」 (41.4) ...전월 대비 0.6포인트 감소. 3개월 만에 악화되었다.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의 체감경기가 정체된 채이다」 등 『제조』 가 2개월 만에 침체하였다. 또한 숙박관련에서는 평일 가동율이 낮고, 주말에 집중된 경향이 나타났다. 규모별로는 소규모기업 일수록 크게 하락하였다.
- 「췌고쿠」 (42.6) ...동 0.5포인트 감소. 3개월 연속 악화되었다. 지역 내 5개 현(県)중 4개 현이 악화, 1개 현이 개선되었다. 전기기계 등을 포함하는 『제조』 가 3개월 연속 악화된 한편 원재료 가격의 급등 및 저조한 해외경제의 영향 등으로 7개 업계가 악화되었다.
- 「호쿠리쿠」 (42.4) ...동 1.0포인트 증가. 2개월 연속으로 개선되었다. 지역 내 4개현(県) 중 3현이 개선, 1개 현이 보합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을 중심으로 상향하였다. 인바운드 수요가 호조인 한편 북구·부흥 속도가 우려되는 가운데 「지역내 격차가 크다」 는 목소리도 들렸다.

지역별 그래프(2021년 1월부터의 월별추이)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4년 1월	2월	3월	4월	전월 대비
홋카이도	42.2	43.0	43.9	45.6	44.8	43.6	43.7	43.3	43.3	41.6	41.8	42.4	42.8	0.4
토호쿠	41.2	41.6	41.7	42.1	41.8	41.5	41.4	41.3	40.3	40.2	38.8	39.3	39.2	▲ 0.1
키타칸토	43.3	43.4	42.8	43.1	43.1	42.9	43.0	42.6	43.0	40.9	41.7	42.0	41.4	▲ 0.6
미나미칸토	46.7	47.2	47.2	47.4	46.6	46.4	46.3	46.7	46.6	46.5	46.6	47.2	46.6	▲ 0.6
호쿠리쿠	42.5	44.0	43.7	43.6	43.1	42.5	42.1	42.3	42.5	40.0	39.8	41.4	42.4	1.0
토카이	43.3	44.6	43.8	44.4	44.4	43.6	44.4	45.1	44.8	44.4	43.1	43.7	43.2	▲ 0.5
킨키	44.3	45.4	43.9	43.8	43.6	43.2	43.7	44.1	44.6	43.6	43.2	43.6	43.7	0.1
췌고쿠	44.8	44.9	44.7	45.3	44.3	44.1	44.9	44.2	43.9	44.3	43.2	43.1	42.6	▲ 0.5
시코쿠	40.7	43.0	41.7	42.6	41.8	41.2	41.4	41.3	42.5	42.2	41.0	41.1	41.2	0.1
큐슈	48.1	48.5	48.2	48.0	48.3	47.7	48.6	48.7	49.0	48.3	48.1	48.5	47.6	▲ 0.9
격차	7.4	6.9	6.5	5.9	6.5	6.5	7.2	7.4	8.7	8.3	9.3	9.2	8.4	

※색이 없는 부분은 전월 대비 개선 또는 증가, 황색은 전월 대비 보합, 청색은 전월 대비 악화 또는 감소를 나타냄